

| 발간사 |

초심을 잃지 않도록



손 미 옥

대전충청지부 총복지회장 (주)오토닉스

가을 맛을 준비는 되었는지요?

유난히 더워서 건강한 사람도 지치고 힘들게 만들던 폭염도 어느새 사랑대는 가을바람에 한 발짝 물러가고 높고 파란 하늘과 고추잠자리가 예쁘기만 한 요즈음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열심이신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시지요?

이제 우리가 원치 않아도 가을 맛을 준비를 해야 할 때인 듯싶습니다. 과연 열심히 일을 했나요? 열매는 얼마나 맺었나요? 많은 열매 맺는 풍성한 가을이시기를 바랍니다.

전국적으로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음식업의 사장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사용했던 앞치마를 늘 꺼내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합니다.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저 또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.

1991년 산업간호사로 입문하여 어느새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. 그동안 많은 보람과 때론 좌절도 겪으면서 한층 더 성숙해진 나를 발견합니다. 15년이란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뒤돌아보면 한걸음에 달려 온 느낌입니다.

작은 배려와 관심에 감사해하며 고구마를 삶아 가져다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싱싱한 포도를 보니 내 생각이 났다며 포도를 가져다주신 분. 남편의 담배를 끊게 해 주어 너무나 감사하다며 음료수와 과자를 한아름 선물해 주신 분...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이 났을 거라며 감사하다며 내 손을 꼭 잡고 울먹이던 자궁에 물혹이 있었던 아가씨... 등등...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파이팅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

전국의 산업간호사 회원 여러분

사람은 없어 봐야 그 빈자리를 안다합니다. 빈자리가 드러나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늘 자기개발에 힘쓰고 앞으로 한발 한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우리는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의학의 선구자로서의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늘 초심을 잃지 말고 부단히 정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.